

---

# 국립국어원 소식

---

## I . 국립국어원 주요 행사

### 1.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

- 분단과 통합을 경험한 나라의 다양한 정책 사례 발표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남북 언어 통합의 나아갈 길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한 나라의 언어 정책 전문가 7명을 초청하여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라는 주제로 11월 2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남북 언어 통합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대회는 체제 분단과 통합을 경험한 나라들의 언어 통합 관련 사례를 살펴 남북한 언어 통합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행사 명: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국제 학술 대회</li><li>· 주최·주관: 국립국어원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li><li>· 행사 일: 2011년 11월 23일(수)</li><li>· 장 소: 서울 국립고궁박물관</li><li>· 참가 인원: 국내외 남북 언어 관련 전문가 100여 명</li></ul> |
|--|

이번 국제 학술 대회의 발표자로는 중국, 마카오, 타이완, 베트남, 미국의 언어 정책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하였고, 연세대학교의 김하수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한국의 남북 언어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 조남호 어문연구실장이 발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그동안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고, 남북 공동 학술 대회를 7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최근에는 제3국에서 재외 동포 언어 전반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체제의 분단과 통합이라는 유사한 경험을 한 나라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남과 북의 언어 통합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2. 표준 화법 보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매제’, ‘제부’, ‘엄마’ 등 논의 -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 화법 보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2일(수) 오후 3시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재형 MBC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한재영 한신대 교수가 표준 화법 보안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강성곤 KBS 아나운서, 리의도 춘천교대 교수, 정미경 소설가, 채완 동덕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성장 후에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는 안에 대하여 ‘성장 후’라는 기준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엄마’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반하여 현실적으로 ‘엄마’가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포용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론이 있었다.

여동생의 남편을 ‘제부’, ‘매제’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서는 이미 언중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관계를 나타내기 에 적절하므로 수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편을 ‘신랑’으로 가리킬

수 있다는 안을 두고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더라도 격식에 맞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 화법으로 권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 4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열린 자문 위원회에서 표준 화법 보완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립국어원은 보완된 표준 화법안에 대한 국민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각계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표준 화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앞으로 국어심의회에 부칠 계획이다.



### 3. 한국어는 내가 최고! '제2회 외국인 한국어 겨루기' 개최

- 2010년~2011년 각종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들이 모여서 최고를 가리는 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주최하고 KBS 한국어진흥원이 주관한 '제2회 외국인 한국어 겨루기' 대회가 9월

23일(금)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2번째인 이번 대회는 2010년~2011년에 개최된 각종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들이 모여 최고를 가리는 '왕중왕전'으로 기획되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한국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도 참여하여 더욱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 40명의 외국인이 참가하여 조별 토론, 개인 발표, 한국 문화 퀴즈 등 단계별 경연 과정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겨루었다. 그 외에도 전통 놀이 체험, 한지 공예 등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 5명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10월 10일에 방송된 KBS '우리말 겨루기'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시 한 번 실력을 겨루었다.

#### 4. 2011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후기

##### - 국어 말뭉치 및 사전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위원장 이근배)가 개최한 '2011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조직위원장 이재성)가 10월 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 A홀에서 열렸다.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 대회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국어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어 정보 처리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자 개최되었다.

응모작 중 예심을 거친 9개의 작품이 본선에서 승부를 겨루었는데

대상은 울산대학교 신준철 팀이 제출한 ‘U Tagger: 한국어 문장에 대한 품사 및 동형 이의어 태깅 시스템’이 차지했다. ‘U Tagger’는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직접 형태 분석 사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금상은 개인 개발자 최시영의 ‘세종 시맨틱 검색’이 차지했는데, 이 작품은 세종 전자사전의 정보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은상은 연세대 김용목의 ‘〈날개셋〉 한글 입력기’와 건국대 김현수 팀의 ‘도전! 우리말’이 차지했다.

이번 경진 대회에는 ‘SKA(Sogang Korean Dependency Analyzer)’, ‘학습 기능 품사 부착 도구’, ‘너랑 나랑은(단어 연관 관계 조사 프로그램)’ 등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를 활용한 실용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앞으로도 한국어 정보 처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번 대회의 본선 진출 작품은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언어 정보 자원 공유 시스템’(가칭)을 통해 모두 공개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 1〉 발표



〈사진 2〉 대상 수상



〈사진 3〉 본상 수상자와 함께

## 5. 국어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는 한민족 100년의 역사

- 국립국어원 ‘디지털 한글박물관’

〈한민족 일깨우다! 국어 교과서 한 세기 특별전〉 개최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565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여섯 번째로 디지털 한글박물관 특별 기획전(<http://www.hangeulmuseum.org>)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어 교과서의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살펴볼 수 있도록 〈한민족 일깨우다! 국어 교과서 한 세기 특별전〉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게 된 디지털 한글박물관 〈한민족 일깨우다! 국어 교과서 한 세기 특별전〉에서는 근대 이후 우리의 말과 글을 교육하는 데 쓰였던 대표적인 국어 교과서 66종을 근대 계몽기, 일제 강점기, 건국기 및 교육 과정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그림 1〉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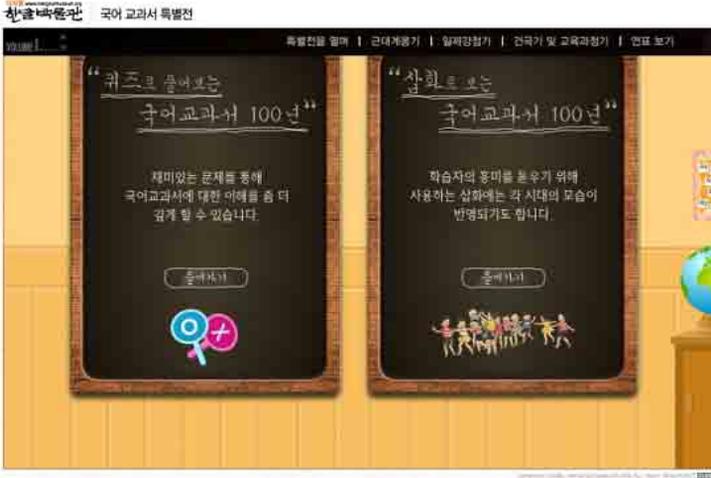
전시 목록		특별전을 열며		들어가기	
<b>근대개원기</b>	<b>일제강점기</b>	<b>건국기 및 교육과정기</b>			
<b>근대 개원기</b> 서민일지 서정결문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학 상상소학 초등소학 단행본독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고등 소학독본 단행본독 서의	<b>조선어 교과서</b> 교재(학)이전 제1차 교재본 제2차 교재본 제3차 교재본 제4차 교재본 제5차 교재본 제6차 교재본 제7차 교재본 제8차 교재본 제9차 교재본 제10차 교재본 제11차 교재본 제12차 교재본 제13차 교재본 제14차 교재본 제15차 교재본 제16차 교재본 제17차 교재본 제18차 교재본 제19차 교재본 제20차 교재본 제21차 교재본 제22차 교재본 제23차 교재본 제24차 교재본 제25차 교재본 제26차 교재본 제27차 교재본 제28차 교재본 제29차 교재본 제30차 교재본 제31차 교재본 제32차 교재본 제33차 교재본 제34차 교재본 제35차 교재본 제36차 교재본 제37차 교재본 제38차 교재본 제39차 교재본 제40차 교재본 제41차 교재본 제42차 교재본 제43차 교재본 제44차 교재본 제45차 교재본 제46차 교재본 제47차 교재본 제48차 교재본 제49차 교재본 제50차 교재본 제51차 교재본 제52차 교재본 제53차 교재본 제54차 교재본 제55차 교재본 제56차 교재본 제57차 교재본 제58차 교재본 제59차 교재본 제60차 교재본 제61차 교재본 제62차 교재본 제63차 교재본 제64차 교재본 제65차 교재본 제66차 교재본 제67차 교재본 제68차 교재본 제69차 교재본 제70차 교재본 제71차 교재본 제72차 교재본 제73차 교재본 제74차 교재본 제75차 교재본 제76차 교재본 제77차 교재본 제78차 교재본 제79차 교재본 제80차 교재본 제81차 교재본 제82차 교재본 제83차 교재본 제84차 교재본 제85차 교재본 제86차 교재본 제87차 교재본 제88차 교재본 제89차 교재본 제90차 교재본 제91차 교재본 제92차 교재본 제93차 교재본 제94차 교재본 제95차 교재본 제96차 교재본 제97차 교재본 제98차 교재본 제99차 교재본 제100차 교재본	<b>건국기</b> 한글정경본 국어 1-1 (한시)가 초등국어본 1종 중학국어 1-1 (한시)가 초등국어 1-1 초등국어 1-2 초등국어 1-3 초등국어 1-4 초등국어 1-5 초등국어 1-6 초등국어 1-7 초등국어 1-8 초등국어 1-9 초등국어 1-10 초등국어 1-11 초등국어 1-12 초등국어 1-13 초등국어 1-14 초등국어 1-15 초등국어 1-16 초등국어 1-17 초등국어 1-18 초등국어 1-19 초등국어 1-20 초등국어 1-21 초등국어 1-22 초등국어 1-23 초등국어 1-24 초등국어 1-25 초등국어 1-26 초등국어 1-27 초등국어 1-28 초등국어 1-29 초등국어 1-30 초등국어 1-31 초등국어 1-32 초등국어 1-33 초등국어 1-34 초등국어 1-35 초등국어 1-36 초등국어 1-37 초등국어 1-38 초등국어 1-39 초등국어 1-40 초등국어 1-41 초등국어 1-42 초등국어 1-43 초등국어 1-44 초등국어 1-45 초등국어 1-46 초등국어 1-47 초등국어 1-48 초등국어 1-49 초등국어 1-50 초등국어 1-51 초등국어 1-52 초등국어 1-53 초등국어 1-54 초등국어 1-55 초등국어 1-56 초등국어 1-57 초등국어 1-58 초등국어 1-59 초등국어 1-60 초등국어 1-61 초등국어 1-62 초등국어 1-63 초등국어 1-64 초등국어 1-65 초등국어 1-66 초등국어 1-67 초등국어 1-68 초등국어 1-69 초등국어 1-70 초등국어 1-71 초등국어 1-72 초등국어 1-73 초등국어 1-74 초등국어 1-75 초등국어 1-76 초등국어 1-77 초등국어 1-78 초등국어 1-79 초등국어 1-80 초등국어 1-81 초등국어 1-82 초등국어 1-83 초등국어 1-84 초등국어 1-85 초등국어 1-86 초등국어 1-87 초등국어 1-88 초등국어 1-89 초등국어 1-90 초등국어 1-91 초등국어 1-92 초등국어 1-93 초등국어 1-94 초등국어 1-95 초등국어 1-96 초등국어 1-97 초등국어 1-98 초등국어 1-99 초등국어 1-100	<b>국립한글박물관</b> 초등국어 1-1 국어 1-1 (한시)가 초등국어본 1종 중학국어 1-1 (한시)가 국어 1-1 중학국어 1-1 초등국어 1-1 초등국어 1-2 초등국어 1-3 초등국어 1-4 초등국어 1-5 초등국어 1-6 초등국어 1-7 초등국어 1-8 초등국어 1-9 초등국어 1-10 초등국어 1-11 초등국어 1-12 초등국어 1-13 초등국어 1-14 초등국어 1-15 초등국어 1-16 초등국어 1-17 초등국어 1-18 초등국어 1-19 초등국어 1-20 초등국어 1-21 초등국어 1-22 초등국어 1-23 초등국어 1-24 초등국어 1-25 초등국어 1-26 초등국어 1-27 초등국어 1-28 초등국어 1-29 초등국어 1-30 초등국어 1-31 초등국어 1-32 초등국어 1-33 초등국어 1-34 초등국어 1-35 초등국어 1-36 초등국어 1-37 초등국어 1-38 초등국어 1-39 초등국어 1-40 초등국어 1-41 초등국어 1-42 초등국어 1-43 초등국어 1-44 초등국어 1-45 초등국어 1-46 초등국어 1-47 초등국어 1-48 초등국어 1-49 초등국어 1-50 초등국어 1-51 초등국어 1-52 초등국어 1-53 초등국어 1-54 초등국어 1-55 초등국어 1-56 초등국어 1-57 초등국어 1-58 초등국어 1-59 초등국어 1-60 초등국어 1-61 초등국어 1-62 초등국어 1-63 초등국어 1-64 초등국어 1-65 초등국어 1-66 초등국어 1-67 초등국어 1-68 초등국어 1-69 초등국어 1-70 초등국어 1-71 초등국어 1-72 초등국어 1-73 초등국어 1-74 초등국어 1-75 초등국어 1-76 초등국어 1-77 초등국어 1-78 초등국어 1-79 초등국어 1-80 초등국어 1-81 초등국어 1-82 초등국어 1-83 초등국어 1-84 초등국어 1-85 초등국어 1-86 초등국어 1-87 초등국어 1-88 초등국어 1-89 초등국어 1-90 초등국어 1-91 초등국어 1-92 초등국어 1-93 초등국어 1-94 초등국어 1-95 초등국어 1-96 초등국어 1-97 초등국어 1-98 초등국어 1-99 초등국어 1-100		

〈그림 2〉 전시 목록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교육 기관인 '육영공원'의 학습용 교재로 쓰이며 근대 교재의 효시로 불리는 《사민필지(士民必知)》부터, 학부(學部)에서 편찬한 최초의 국정 국어 교과서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등 근대 계몽기의 국어 교과서가 이번 기획전에 전시되어 있다.

또한 1910년 강제 병합의 결과 우리말을 빼앗기고 '조선어(朝鮮語)' 또는 '조선어급한문(朝鮮語及漢文)' 교과로서 배워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여러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조선어급한문독본(朝鮮語及漢文讀本)》 교재들, 해방 이후 본격적인 교육 과정기가 열리면서 편찬된 건국기 및 교육 과정기의 국어 교과서들까지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어 있어 국어 교과서를 한 세기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별도로 마련한 기획관에서는 각 시대별 교과서에 쓰였던 삽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삽화의 시대적 배경과 그 속에 숨어 있는 교육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그 의미를 쉽게 풀이한 설명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각 시대별 전시 내용을 담은 문제(퀴즈)를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관람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림 3〉 기획관



〈그림 4〉 기획관 삽화 특집

시대가 바뀌면서 다양한 시칭각 교재와 교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우리 교실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한

대표적인 교육 자료이자 교구이며, 세기를 거듭하며 발견한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 경험들을 담고 있는 진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한 세기를 이룬 국어 교과서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시기와 주제별로 전시관을 구성하였다.

매년 10월 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교과서의 날’이다. 이번 특별 기획전 <한민족 일깨우다! 국어 교과서 한 세기 특별전>은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교과서의 날’에 맞추어 시작하였다. 10월 5일부터 언제든지 디지털 한글박물관 누리집(<http://www.hangeulmuseum.org>)을 방문하여 이번 특별 기획전을 관람할 수 있다.

## II. 국립국어원 주요 활동

### 1. 행정 기관 보도 자료, 국어 사용에 많은 문제점 드러나

- ‘개서(開署)’, ‘팽윤(膨潤)’, 탄키 공사, UEP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공공 기관의 국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40개 중앙 행정 기관과 16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생산된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국어 사용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국어원은 2011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6개 행정 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 3건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국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번 진단은 2010년도에 국립국어원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민현식 교수 연구진에 의뢰하여 개발한 ‘공공 언어 진단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활용하면 ‘정확성’ 400점, ‘소통성’ 600점의 1,000점 만점

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진단 기준은 기존의 공공 기관 언어 평가가 정확한 국어 사용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을 극복하고자 소통성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공공 기관 언어의 분량에 따라 진단 결과가 좌우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계적 처리 절차를 구안하였다.

‘소통성’ 항목에서는 ‘한눈에 쏘옥’, ‘생생(生生) 사업’처럼 구어체를 쓰거나 부적합한 한자어를 만들어 공공 언어의 품격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장애인들 사이에서 결혼을 하려면 맞선 대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인식된다.’와 같은 차별적 표현 사례가 지적되었다. 또한 하나의 보도 자료 안에서 ‘-습니다’와 ‘-다’의 종결 어미를 통일하여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문단 전환이 명료하지 않아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거나 문단이 바뀔 때마다 불필요한 번호를 붙이는 관행에 져어 있는 기관 등도 있었다. 또한 문장이 지나치게 긴 경우가 많아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어휘상으로는 ‘개서(開署)’, ‘팽윤(膨潤)’과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경우, 부가 설명 없이 ‘턴키 공사, UEP’와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타깃, 글로벌, 피니시’처럼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지적되었다. 팽윤(膨潤)은 의학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로 디스크가 부어오르는 과정이다. 팽윤(膨潤)이 더 많이 진행된다면 ‘허리 디스크’로 까지 가게 된다. 따라서 보도 자료 본문에 ‘팽윤’에 대한 설명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 대상 용어	개선한 용어	구분
개서(開署)	개설 또는 신설	한자어
팽윤(膨潤)	(디스크) 붓기	한자어
턴키 공사(Turn key-)	일괄 수급 공사	외국어
UEP(Uranium Enrichment Program)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외국어 문자
글로벌(Global)	국제	외국어
피니시(Finish)	끝	외국어
T/F팀(Task Force Team)	특별팀	외국어
인프라(Infra)	기반	외국어

다음으로 ‘정확성’ 항목에서는 4대 어문 규범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지키지 않은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로는 ‘걸맞은 → 걸맞은’, ‘컨텐츠 → 콘텐츠’, ‘캡쳐 → 캡처’, ‘자연스런 → 자연스러운’,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킴으로서 → 확산시킴으로써’ 등과 같은 예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학교, 군부대 등 순회 전시 및 사이버 전시 등’의 표현처럼 ‘등’의 불필요한 반복으로 의미 파악에 모호함을 주어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공 언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나 ‘238천 원’의 표현처럼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들도 다수 지적되었다.

진단 결과, 정확성과 소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각종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행정 기관 40곳과 광역 지방 자치 단체 16곳의 3개 보도 자료에 대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화하였다. 이 등급화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평가를 한 것인데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는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이나 ‘미흡’으로 진단된 기관들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 행정 기관보다 지방 자치 단체의 보도 자료에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앞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보도 자료 개선이 더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국립국어원은 공공 기관이 생산하는 보도 자료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보도 자료 작성 지침서를 올 연말에 발간해서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에 배포하여 보도 자료 작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을 상대로 보도 자료 작성에 담당할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2011년 상반기에 국어단체 연합 국어문화원과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대상 ‘맞춤형 보도 자료 바로 쓰기’ 교육에 국립국어원 연구직이 강의에 참여한 바 있다.) 나아가 국립국어원은 이번 진단 결과를 각 공공 기관에 통보한 뒤,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1년 10월 말에 한 차례의 진단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 자료가 국민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부터 대변인실에 계약직 국어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도 자료가 배포되기 전에 문장을 다듬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 2.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 저품격 언어 사용 심각

### - 국립국어원, 예능 프로그램 언어 조사 결과 및 대안 발표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방송 3사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품격 언어 표현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지상파 방송 3사의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KBS-2TV **얕은 꼴 스타 총출동 -나는 가짜다**, 코미디 한일전, MBC-TV **아나운서 대격돌 최고의 며느릿감을 찾아라**,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SBS-TV **스타 커플 최강전**, **한류 올림픽**)에서 나타나는 저품격 언어를 분석한 결과, 총 150건 이상의 저품격 방송 언어 사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로 지적한 것은 저품격 방송 언어 표현으로,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속어, 은어, 비표준어 등을 대분류로 삼았다. 조사 결과,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각종 은어들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게 되는 명절 특집 방송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유형	사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살림을 어떻게 개떡같이 하면은. <span style="float: right;">〈아나운서 대격돌〉</span> 결승점에서 애타게 손 흔드는 애완견(?) 소리 <span style="float: right;">〈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span> 근데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span style="float: right;">〈스타 커플 최강전〉</span>
은어	깨알 같은 코믹연기까지~ <span style="float: right;">〈아나운서 대격돌〉</span> 사실 2AM은 조권 씨의 짝꿍이잖아요, 짝을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span style="float: right;">〈한류 올림픽〉</span> 개그계의 짐승남이시죠. <span style="float: right;">〈스타 커플 최강전〉</span>

명절 연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대에 방송되는 명절 특집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은 물론,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바른말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진행자와 제

작진의 각성이 필요하다. 또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외래어 및 외국어, 은어의 사용도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 3.1. ‘트라우마(trauma)’는 ‘사고후유(정신)장애’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트라우마(trauma)’의 다듬은 말로 ‘사고후유(정신)장애’를 최종 선정하였다. ‘트라우마’는 ‘과거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과 상처로 남아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트라우마’를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414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사고후유장애’, ‘충격장애’, ‘충격후유장애’, ‘충격후유증’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44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사고후유장애’는 665명(45%), ‘충격장애’는 230명(15%), ‘충격후유장애’는 289명(19%), ‘충격후유증’은 264명(18%)이 지지하였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사고후유장애’가 ‘트라우마’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트라우마’의 다듬은 말로 결정된 ‘사고후유장애’는 ‘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등의 신체적인 후유 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신적 상처임을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후유정신장애’로 쓸 수 있도록 다듬은 말을 ‘사고후유장애’ 또는 ‘사고후유정신장애’로 정하였다. 이에 ‘트라우마’의 다듬은 말로 ‘사고후유(정신)장애’를 최종 선정하였다.

#### 3.2. ‘커밍아웃(coming-out)’의 다듬은 말은 말은 선정하기 않기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커밍아웃

웃(coming out, 동성애자가 가족, 직장, 학교, 일반 사회를 대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의 다듬은 말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은 '커밍아웃'을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354건 가운데, '공개 고백', '동성애 선언', '동성애자 선언', '성 정체성 공개'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59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공개 고백'은 253명(15%), '동성애 선언'은 311명(19%), '동성애자 선언'은 342명(21%), '성 정체성 공개'는 687명(43%)이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커밍아웃'의 다듬은 말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성 정체성 공개'는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말이 아니어서 널리 사용되리라 보기 어렵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커밍아웃'의 다듬은 말을 선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 3.3. '팜 파탈(femme fatale)'은 '매력악녀'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팜 파탈(femme fatale)'의 다듬은 말로 '매력악녀'를 최종 선정하였다. '팜 파탈'은 '남성을 치명적이거나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팜 파탈'을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373건 가운데, '가시미인', '매력악녀', '매혹악녀', '매혹요부'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28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586명(45%)이 지지한 '매력악녀'가 '팜 파탈'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 3.4. '싱크로율(synchro率)'은 '일치율'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싱크로율(synchro率)'의 다듬은 말로 '일치율'을 최종 선정하였다. '싱크로율'은

어떤 요소와 요소가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완성도’ 또는 ‘정확도’와 비슷한 말로 쓰인다.

‘싱크로울’을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290건 가운데, ‘일치울’, ‘합치울’, ‘동화울’, ‘닳음비’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42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969명(67%)이 지지한 ‘일치울’이 ‘싱크로울’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 3.5. ‘인저리 타임(injury time)’은 ‘추가시간’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인저리 타임(injury time)’의 다듬은 말로 ‘추가시간’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저리 타임’은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각 45분의 정규 시간 이후 주심이 재량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는 시간을 이르는 말이다.

‘인저리 타임’을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296건 가운데, ‘덤시간’, ‘보충시간’, ‘추가시간’, ‘추가허용시간’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29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855명(66%)이 지지한 ‘추가시간’이 ‘인저리 타임’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 4. 2011년 제4회 원내 토론회 후기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제4회 원내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 제	국어사전의 역할과 어문 규범 정책 프랑스 언어 정책 기관 탐방 보고
발표자	이승재 언어정보팀장 정희원 어문연구팀장, 위진 학예연구사
일 시	2011년 10월 18일(화)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승재 언어정보팀장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하였다.

- 1) 국어사전의 역할과 표준국어대사전
- 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 국어사전
- 3) 어문 규범 정책과 남은 문제들

발표자는 사전이 종이 사전, 디지털화된 사전, 기계 처리용 전자사전, 전자사전(언어 지식 사전)의 네 단계로 진화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국가 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모호한 성격이 중점적으로 지적되었는데, 특히 ‘규범 사전’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비표준어, 특정 지역 방언 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북한어 수록 문제까지가 쟁점이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전은 실생활 언어 정보를 보완하고 확장하기에 유리하며 국제적이고 표준적인 사전 구조에 따라 설계하여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뜻풀이를 사전 항목의 최소 관리 단위로 설정하여 최소 관리 단위를 동음이의어가 아닌 다의어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로써 국내외 자료와의 연계, 말뭉치 분석, 어휘 의미망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쉬운 뜻풀이’를 지향하며 어려운 한자어의 순환 풀이 등 뜻풀이와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한다. 그리고 신어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직접 사전 편집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방식의 사전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사전〉도 구축하여 몽골어, 베트남어, 타이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한국어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현재 사전의 기본 구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에 규범 사전과 구어 사전을 구축

하고 수요자 맞춤형 언어 정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국어 사전도 15개 언어 사전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런데 사전 편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문 규범’ 문제로서, 언어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성문화된 규범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문제, 표준어의 범주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토론 과정에서는 언어 현실과 규범의 괴리 문제와 이를 사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승재 언어정보팀장에 이어 정희원 어문연구팀장과 위진 학예연구사가 지난 9월 말에 다녀온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을 소개하고 방문 성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국립국어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에서 프랑스어 보급, 프랑스어 실태 조사, 전문 용어 순화, 공익 실현 등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외무부에서 프랑스 문화원, 프랑스 학술원 등 외국의 프랑스어 교육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알아보았다. 1635년에 설립한 프랑스 학술원은 프랑스어 진흥 기관으로서 현재 대다수의 프랑스인이 사용하는 공통 프랑스어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현재 출판 중인 9판은 인터넷 판을 발간하고 사전에 등재하기 전에 정부 기관지에 발표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교육부로서,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하는 4만 명 상당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학생별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에는 문해력 향상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 비문해 퇴치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프랑스 국민의 문해력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언어 정책의 역사가 긴 프랑스의 상황을 둘러본 것은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공감하였다.

## 5. 2011년 제5회 원내 토론회 후기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제5회 원내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 제	1980년~1990년대 어문 규정 회고
발표자	정준섭(전 문교부 국어 편수관)
일 시	2011년 11월 3일(목)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을 개정하는 데에 실무를 담당하셨던 정준섭 선생님이 ‘1980년~1990년대 어문 규정 회고’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 5.1. 어문 규정의 출발

어문 규정은 세종대왕 때에도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문서로 전해진 바는 아직까지 없다. 문서로 나타난 것은 1912년 조선 총독부의 ‘언문 철자법’이 처음이다. 그리고 1930년대에 이르러 개정 철자법이 발표되고, 이는 다시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바탕이 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표의주의 표기를 표음주의 표기로 개선한 표기법이다. 그 후 해방 전까지 한글학회에서 어문 규정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어문 규정 관련 사업이 문교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문 규정과 관련한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웠다. 군

정청 법령 제4호(1945. 9. 29.) 제6조 “교훈 용어는 조선어로 한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남아 있다. 그러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다. 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어문 정책의 법률적 출발이 된다.

## 5.2. 어문 규정 개정 과정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한글 전용 정책’을 시행하고, 그해 10월 문교부에 ‘알기 쉬운 표기법’ 연구 계획을 지시한다. 이로써 어문 규정 개정 작업이 시작되고, 그 업무는 문교부 편수국이 담당한다. 당시 문교부 편수관으로는 이병호 편수관과 정진권 편수관이 있었으며, 그들을 보좌하기 위해 최현섭 선생이 있었다. 그들은 어문 표기법(당시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을 통틀어 어문 표기법이라 부름.)의 개정 방향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1970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1972년부터 실제로 개정 작업에 돌입하여, 1978년 완성한다. 완성된 후에는 국어심의회 위원, 문교부 장·차관, 실·국장, 일간지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어심의회에서 문교부에 공식 보고하고, 대국민 설문 조사, 신문지상을 통한 의견 수렴, 시도별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1979년 7월에 어문 표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당시 국어심의회 위원장인 허웅 선생님이 그 결과를 발표한다. 1979년 8월에 공개 답신회(학술원이 어문 표기법 개정안을 문교부에 공개 보고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1979년 12월에 문교부 최종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심 혼란을 우려하여 어문 규정 확정은 보류된다.

1980년 제5 공화국이 출범하고, 어문 규정을 담당했던 실무관들이 떠나면서 어문 정책은 표류하게 된다. 당시 문교부 장관은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어문 규정의 대외적 권위 제고, 국어 정책·교

육의 합리화를 피하기 위해 어문 정책 사업을 학술원에 이관한다. 그러나 학술원에는 법률 제정 및 공포권이 없어서 다시 문교부로 돌아온다.

이처럼 어문 규정 개정 사업이 표류하는 중에, 외국 유학과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의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라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정부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학술원에 어문연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어문연구위원회는 학술원의 인문 분과 회원이 주축이 되었으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담당하는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5.3. 어문 규정의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개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문교부는 1984년 1월에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확정 고시한다. 그리고 학술원은 1984년 8월에 나머지 3개 표기법을 완성하고, 문교부에 보고한다. 그러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제외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의 개정 고시는 난관에 부딪힌다. 한글 맞춤법 개정 내용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팽팽하여, 당시의 문교부 장관들이 고시를 유보하였기 때문이다.

문교부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1984년 국어연구소를 설립한다. 국어연구소는 1986년 개최된 아시안 게임의 선수 명칭 등의 외래어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986년 1월에 외래어 표기법을 고시한다. 그리고 1988년 1월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고시한다. 당시 문교부 편수국과 국어연구소에서는 신문 기자들이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해 기사화하기 쉽도록 미리 기사문을 작성하고 배포하였다. 그러한 노력 덕택에 발표 당일 6대 신문에 1면 머리 기사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1988년 1월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어문 규정 개정 사업을 '모

범적인 정책 결정의 사례'로 꼽고, 문교부가 15년간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한 모범적인 정책 결정의 사례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어문 규정 개정에 대해 당시에도 비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원내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준섭 선생님은 권재일 국립국어원장을 만나 1988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이 완성되기까지의 국어심의회 회의 녹취 자료를 국립국어원에 기증하였다. 그리고 현재 어문 규정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이 이 자료를 잘 활용할 것이라 믿어서 “국립국어원에 돌려준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 6.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제99차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1. 10. 21.)

#### [인 명] -실무소위 부결

- 돌비, 앤드루 Andrew Dalby 1947~ 영국 언어학자 · 역사가 · 번역가.  
음식의 역사, 언어, 고대 문헌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집필. 최신작 《치즈의 역사(Cheese: a global history)》(2009). 2008년 국내 출간한 한글판 번역서 《언어의 종말(Language in Danger)》(2002)에서는 '앤드류 돌비'를 저자명으로 사용.
- 밀러, 자크 Jacques Miller 본명 자크 프랑시스 알베르 피에르 피니에 Jacques Francis Albert Pierre Meunier 1931~ 오스트레일리아 의학자 · 생물학자. 프랑스 니스 태생. 프랑스, 스위스, 중국 상하이에서 성장. 1941년 시드니로 이주.
- 버칸티, 조지프 (필립) Joseph P(hilip) Vacanti ?~ 미국 외과 의사 · 의학자. 하버드(Harvard)대 의학대학원 외과 교수.
- 블레델, (김벌리) \*알렉시스 (Kimberly) Alexis Bledel 1981~ 미국 여배우 · 패션모델. 휴스턴(Houston) 태생. 부친은 덴마크계 아르헨티나인.
- 서먼, 우마 (카루나) Uma (Karuna) Thurman 1970~ 미국 배우 · 모델. 불교학자 로버트 서먼(Robert Thurman)의 딸.
- 심프슨, 웨브 Webb Simpson 본명 제임스 프레더릭 심프슨 James Frederick Simpson 1985~ 미국 골프 선수.
- 아슈미드, 니켈 Nickel Ashmeade 1990~ 자메이카 육상 선수. 단거리 달리기 종목 선수.
- \*워즈니악, 스티브 Steve Wozniak 본명 스티븐 게리 워즈니악 Stephen Gary Wozniak 별칭 워즈 Woz 1950~ 미국 컴퓨터 기술자 · 프로그램

개발자. 애플 컴퓨터(Apple Computer: 현 애플 Apple) 공동 설립자 (1976. 4.).

- \*카다시안, 로버트 (조지) Robert (George) Kardashian Sr. 1944~2003 미국 법조인·실업가·변호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절친한 친구인 미식 축구 선수·영화배우 심프슨(O. J. Simpson)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잘 알려짐. 로스앤젤레스 태생. 아르메니아계 이민 3세. 패션모델·탤런트인 아들 카다시안(Robert George Kardashian, Jr.)과 동명임.
- \*카다시안 (험프리스), 김벌리 Kimberly Kardashian (Humphries) 본명 김벌리 노엘 카다시안 Kimberly Noel Kardashian 애칭 김 Kim 1980~ 미국 모델·배우. 사교계의 명사. 법조인·실업가 카다시안(Robert Kardashian)의 딸, 농구 선수 험프리스(Kris Humphries)의 부인.
- 칼레츠키, 아나톨 Anatole Kaletsky 러시아어명 Анато́ль Кале́цкий 1952~ 영국 언론인·경제 전문가. 모스크바 태생으로 1966년 영국으로 이주.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기자(1976~1979),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뉴욕 지국장을 거친 경제 전문 기고가. 저서 《디폴트의 대가(Cost of Default)》(1985), 《자본주의 4.0(Capitalism 4.0)》(2010).
- 코베리에르, 토마스 Tomas Kåberger 1961~ 스웨덴 물리학자. 일본 자연에너지재단(自然エネルギー財團) 이사장(2011. 8. ~). 스웨덴 에너지청 청장(2008. 3.~2011. 8.).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탈원전론자.
- 크루거, 앨런 (\*베넷) Alan B(ennett) Krueger 1960~ 미국 경제학자. 프린스턴(Princeton)대 교수. 재무부 경제 정책 자문보(2009. 5.~2010. 10.).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2011. 8. 29.).
- 키넝, 글레니스 (\*엘리자베스) Glenys (Elizabeth) Kinnock 본명 글레니스 엘리자베스 패리 Glenys Elizabeth Parry 1944~ 영국 정치가. 외무부(FCO) 아프리카·국제 연합 담당 부장관(2009. 10.~2010. 5.), 유럽 담당 부장관(2009. 6.~2009. 10.). 웨일스(Wales) 대표 유럽의회 의

- 원(1994. 7.~2009. 6.). 전 노동당 당수 닐 키넢(Neil Kinnock)의 부인.
- 키넢, 스티븐 Stephen Kinnock 1970~ 영국 경영인. 스위스 비영리 재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유럽 및 중앙아시아 담당 책임자(2009. 1.~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원장 역임. 전 노동당 당수 닐 키넢(Neil Kinnock)의 아들.
- 토르닝슈미트, 헬레 Helle Thorning-Schmidt 1966~ 덴마크 정치가. 총리(2011. 10.~ ). 사회민주당 당수(2005. 4.~ ). 유럽 의회 의원(1999. 6.~2004. 7.). 전 영국 노동당 당수 닐 키넢(Neil Kinnock)의 며느리.

#### [인 명] -새로 심의

- 리버, 제리 Jerry Leiber 본명 제롬 리버 Jerome Leiber 1933~2011 미국 작사가. 작곡가 마이크 스톨러(Mike Stoller)와의 공동 작업에서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가 부른 '하운드 도그(Hound Dog)'(1956), '교도소 로큰롤(Jailhouse Rock)'(1957) 외에 '스탠드 바이 미(Stand By Me)' 등을 작사.
- 매킨, 스티브 Steve McQueen 본명 테런스 스티븐 매킨 Terrence Steven McQueen 1930~1980 미국 영화배우.
- \*먼데일(폴링), 엘리너(제인) Eleanor(Jane) Mondale(Poling) 1960~2011 미국 여성 방송인. 예능 기자, 배우, 라디오·텔레비전 사회자로 활동. 전 부통령 월터 먼데일(Walter Mondale)의 딸.
- 사전트, 토머스(존) Thomas J(ohn) Sargent 1943~ 미국 경제학자. 뉴욕대 경제학 교수. 전미경제학회 회장(2007). 1970년대 이후 경제학계를 지배해 온 합리적 기대 가설을 발전시킨 거시 경제학자. 거시 경제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중앙은행과 정부의 경제 정책의 변경이 국내 총생산(GDP)이나 인플레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공로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
- 스톨러, 마이크 Mike Stoller 1933~ 미국 작곡가. 작사가 제리 리버

(Jerry Leiber)와의 공동 작업에서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가 부른 ‘하운드 도그(Hound Dog)’(1956), ‘교도소 로큰롤(Jailhouse Rock)’(1957) 외에 ‘스탠드 바이 미(Stand By Me)’ 등을 작곡.

- 심스, \*크리스토퍼 (앨버트) Christopher (Albert) Sims 1942~ 미국 경제학자.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세계 계량경제학회 회장(1994). 벡터 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등 통계 분석 방법을 개발. 거시경제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중앙은행과 정부의 경제 정책의 변경이 국내 총생산(GDP)이나 인플레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공로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
- 예이츠, 피터 (제임스) Peter (James) Yates 1929~2011 영국 영화감독. 대표작 자동차 추격 장면으로 유명한 스티브 매킨(Steve McQueen) 주연의 영화 ‘불릿(Bullitt)’(1968) 등으로 잘 알려짐.

#### [인 명] -재심의

- 스미스, 프레더릭 Smith, Frederick 미국의 정치가(1942~ ). -회의 38차
- 제롬 칼 Jerome Karle 역대 노벨 화학상 수상자 -1985, (미국 1918~ ) 물리학자 -회의 29차
- 존 프레스콧 John Prescott 영국(노동당) 내각(1997. 5. 3.) -회의 16차
- 키넝, 닐 Kinnock, Neil 영국의 정치가. -회의 29차

#### [지 명] -실무소위 부결

- 가셔브룸 산 Gasherbrum 산 카라코람 산맥에 속하는, 중국과 파키스탄 접경의 봉우리군. 히말라야 14좌 중 3개의 봉우리를 포함.

### Ⅲ. 국립국어원 교육과 홍보

#### 1. 2011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 1.1. 2011년 10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2011년 10월(제251기, 제252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가. 수강자 명단: 제251기, 제252기

나. 교육 기간

· 제251기: 2011년 10월 10일(월)~10월 14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52기: 2011년 10월 17일(월)~10월 21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다.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라. 교육 내용: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협력적 의사소통,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등

마.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3층 강의실)

바. 수강료 관련

· 교육비: 120,0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값(5일): 20,000원)

##### 1.2. 2011년 11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2011년 11월(제253기, 제254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가. 수강자 명단: 제253기, 제254기

나. 교육 기간

· 제253기: 2011년 11월 7일(월)~11월 11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54기: 2011년 11월 14일(월)~11월 18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 다.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 라. 교육 내용: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협력적 의사소통,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등
- 마.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3층 강의실)
- 바. 수강료 관련
  - 교육비: 120,0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 값(5일): 20,000원)

### 1.3. 2011학년도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동계 교사 직무 연수 운영 계획

2011학년도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동계 교사 직무 연수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목적: 교사들에게 바른 어문 규범을 익히게 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주변의 언어 환경을 살펴 올바른 언어 의식을 기르도록 함.
2. 연수 중별: 직무 연수(5일 과정 30시간)
3. 연수 과정명: 국어전문교육과정(2011학년도 동계)
4. 연수 과정 구분: 전문성 향상 과정(교과 지도)
5. 연수 기간
  - 3기: 2012년 1월 9일(월)~1월 13일(금)(5일간 30시간, 80명(40명×2반))
  - 4기: 2012년 1월 16일(월)~1월 20일(금)(5일간 30시간, 80명(40명×2반))
  - \* 기수별 초·중등 교사 구분 없이 모집함.(인원수에 따라 적절히 분반할 예정)
6. 연수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지하철 5호선 방화역 근처)
  - 전화: 02-2669-9729, 9662, 전송: 2669-9787, 9747

7. 연수 대상: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160명  
 (\* 이 과정을 수료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함.)
8. 연수 경비: 5만 원  
 입금하실 곳: 신한은행 140-005-709040 (예금주: 국립국어원)  
 ※ 수강자 이름으로 연수 시작 3일 전까지 입금 요.
9. 평가 여부: 평가 안 함.
10. 신청 기간: 2011년 11월 7일(월) 09:00부터  
 12월 2일(금) 18:00까지
11. 교육생 선정 결과 공지: 2011년 12월 9일(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지
12. 교육생 선정 기준
  - 신청자의 지역별(광역 자치 단체별)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 지역별 인원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선정
13.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 신청  
 \* 수강 신청 시 연수지명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4. 과정 내용

교 과 목	교 수 요 목	시 수
한글 맞춤법 이론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	1강좌 (100분)
특강 (우리말 가르치는 일의 무게)	쉬운 우리말 사용이 민주주의 사회 건설의 바탕임에 대한 이해 심화, 우리말 애호 태도 함양	1강좌 (100분)
특강 (시어와 민족어 완성의 길)	현대시 주요 작품 감상을 통해 민족어 자산의 풍부화, 섬세화에 이바지해 온 시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	1강좌 (100분)
띄어쓰기	조사, 의존명사, 관형사, 보조 용언 등 띄어쓰기의 원리를 익힘.	1강좌 (100분)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의 원리 이해하기, 모음이나 받침의 발음, 소리의 길이 소리의 변화에 따른 표준 발음의 원리	1강좌 (100분)
표준어 규정	표준어의 기능,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어 규정의 실제, 자주 틀리는 사례 알기	1강좌 (100분)
청소년언어사용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의 욕설, 비속어 등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봄	1강좌 (100분)
우리말 다듬기	국어 순화에 대한 바른 이해(필요성, 대상, 범위, 효과, 방법, 접근 태도), 국어 순화의 전개 과정, 일본어식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외국어, 변형된 국어,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 복합의 국어 순화	1강좌 (100분)
한글 맞춤법의 실제	맞춤법에서 틀리기 쉬운 말을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고 익힘.	1강좌 (100분)
학교 생활문의 표현	학교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가정 통신문, 생활기록부 등의 작성 시에 필요한 언어 표현을 익힘.	1강좌 (100분)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의 정의, 외래어의 특징,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외래어 표기법의 실제	1강좌 (100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역사, 전사법(轉寫法)과 전자법(轉字法)의 구별, 현행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쟁점과 앞으로의 방향	1강좌 (80분)
구별해야 할 말	발음, 형태, 의미가 비슷한 말 구별하기(한글 맞춤법 제57조의 예들과 일부 한자어들)	1강좌 (50분)
문장 바로 쓰기	문법적인 문장, 의미 전달에 충실한 문장, 주어와 목적어의 누락, 주어와 서술어 관계의 불일치, 조사의 오용, 논리적으로 이상하거나 어색한 문장 등 바른 문장의 요건	1강좌 (100분)
협력적 의사 소통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 효과적으로 듣기(공감적 경청), 효과적으로 말하기(대화의 원리, 정중화법 등)	1강좌 (80분)
시청각 학습	한글 창제의 배경을 당시 정세와 국정 운영에서 찾은 MBC 2005년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CEO 세종'이라는 시청각 자료 학습	1강좌 (70분)
족자 시험	교육 전 1회, 교육 후 1회 족자 시험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함	1강좌 (50분)

## 15. 참고 사항

- 교육 시작일(월)에는 9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교육 장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차량 5부제 시행)
- 구내식당은 국어원 7층에 있습니다.

## 2. 2011년도 제3차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3차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립국어원장

- 다 음 -

### 1. 자격 심사 대상(요건) 및 제출 서류

#### 가. 1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한국어 교원 2급을 취득한 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12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1급-12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

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 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중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2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2005. 7. 28. 후에 대학(원) 입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2급-9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b>2005. 7. 28. 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b>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2급-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b>한국어 교원 3급인 자(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 2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자</b>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2급-13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b>한국어 교원 3급인 자(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 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자</b>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마목)	2급-14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2급-13번」, 「2급-14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영 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 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중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3급 심사 신청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후에 대학 입학(부전공), 양성 과정 등록

대상	신청 등급 -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 7. 28. 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u>부전공자</u>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3급-10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 7. 28. 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	3급-1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 ※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는 <http://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합격 확인서(필기, 면접)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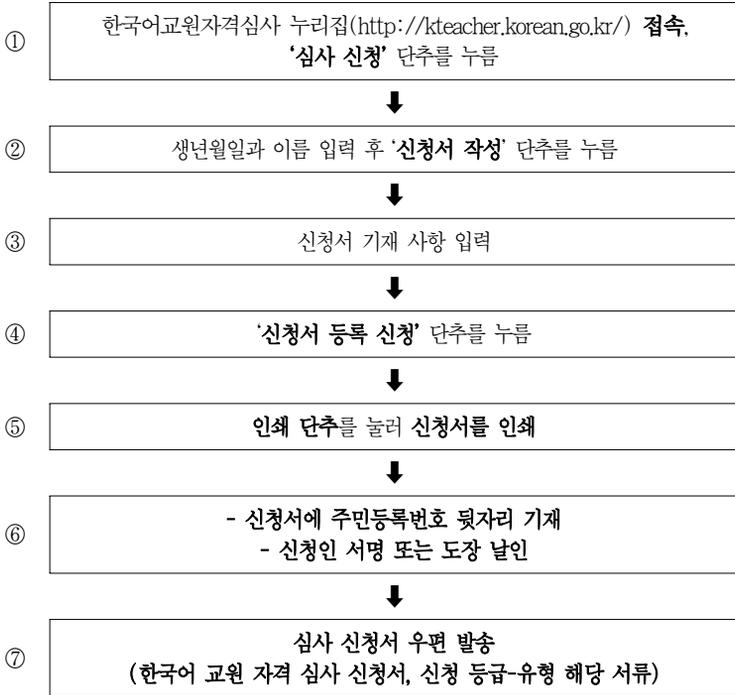
#### 1.1. 필수 이수 학점 미취득자의 자격 부여 조치

- ① 대상: 시행령(제정) 시행 이후(2005. 7. 28.)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자
  - ② 내용: 졸업 후에 부족한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심의하여 자격 부여
  - ③ 기준: 교과목의 영역 착오, 필수 이수 학점 계산 착오 등의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최소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대학 6학점, 대학원 3학점 이내)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에 대학(원) 입학 등 (경과 조치 적용 대상)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이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인 경우에 한함.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 7. 28. 전에 대학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b>부전공자</b>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2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b>*외국 국적자에 한함.</b>
'05. 7. 28. 전에 <b>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b> (국내외의 대학·부설 기관, 초·중·고교 및 정부 기관)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5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 증명서(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b>※ 국외 경력의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언어로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고, 이를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것만 인정함.</b>
'05. 7. 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02~'04)'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6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증명서
'05. 7. 28. 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등록 또는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06년 이후)'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사목)	3급-7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 ※ 「3급-5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영 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 2. 심사 신청 절차



3. 신청 접수 기간: 2011. 12. 19.(월)~2012. 1. 6.(금)

4. 신청 접수 방법: 우편 접수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 바람.(2012. 1. 6.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주소: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 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02-2669-9671, 9672(전자 우편: [kteacher@korea.kr](mailto:kteacher@korea.kr))

5. 서류 작성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참조)

가. 심사 신청서 서류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진 누락 시
  - ※ 신청서 작성 시 사진 첨부이 어려울 경우 인쇄된 신청서에 사진 부착
- 신청자 서명이나 도장 날인 누락 시

나. '1급-12번', '2급-13번', '3급-5번': 경력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는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 문서 참조)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합니다.
- 국외 경력의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는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메일 계정)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다. '3급-11번':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양성 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이수 증명서는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 문서 참조)에 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

- 심사 결과 발표: 2012. 1. 27.(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 시기: 2012년 2월 중
  -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 예정

#### 7. 기타 사항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 심사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V. 국립국어원 인사 발령

### 승진

백진숙: 기능 8급 사무실무원 → 기능 7급 사무실무장(2012년 1월 1일)

### 전보 발령

조원미(5급 대우): 국립국어원 언어정보팀 → 서울대학교(12월 19일)

최익규(행정주사): 서울대학교 →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12월 21일)

정현승(행정주사보):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 → 서울대학교(12월 27일)